

## Video Art Korea 2017

CICA Museum

September 22 -October 8, 2017

2017.09.22 - 10.08

**Featured Artists 참여작가: 권아람, 박진희&송근도, 홍이지, 김준표**

### 권아람

#### “성찬(聖餐, Eucharistia)” (2009)

연작 ‘스캐닝 비디오’는 왜곡된 육체를 통해 디지털이 물성에 개입하는 다양한 방법과 그 사이 발생하는 비물리적인 감각을 깨우고자 시도한 작품이다. 그 중 <성찬(Eucharistia)>은 종교적 의식과 개인의 참회가 관계하며 드러내고 있는 인간 본능의 이중성과 모순성이라는 개인적 경험을 반영한 작품이다. 성체 앞에 허를 내민 모습은 응서를 통해 선을 갈구하는 또다른 욕망의 반영이다. 끝없는 정신적, 육체적 욕망에 탐닉하는 인간의 본성은 이러한 의식의 행위 그 자체를 통해 드러난다.

권아람은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UCL 런던대학교 슬레이드 미술대학에서 미디어아트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작가는 ‘언어, 시간, 물질, 미디어’와 같은 문명의 요소들에 주입된 관념에 대한 사유를 개인적 서사와 결합하여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영상과 설치,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독일 뷔델스도르프의 《Nord Art 2010 International Exhibition》를 비롯하여,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개최된 영화제와 전시를 통해 소개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2015)》 및 독일 《Künstlerhaus Schloß Balmoral (2015)》, 《Künstlerhaus Stuttgart(2016)》, 프랑스 파리 《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Residency(2013)》 등에 입주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 박진희&송근도

#### “블루맨” (2017)

Blue Man is a Single Channel video work made by Jin He Park and Keun Do Song. Blue Man draws the motion of highly sensitive emotion. S/He loves blue, obsesses with blue and collects blue. S/He admires the sea where s/he never been to.

블루맨작업은작가가생각하는파란감정상태를컬러블루로의인화하여제작된박진희,송근도의콜라보영상작업이다.

영상에등장하는블루맨은 파란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집착하고, 소유하려들고 강박증에 이어 편집증 적인 증세까지 보인다. 그리고 그는 항상 가보지못한바다를동경한다.

Jin He Park was born in South Korea in 1990, and now lives and works in Seoul. She has a MA in Sculpture from the Royal College of Art and has participated in various group exhibitions worldwide. Her practice derives from personal experiences and explorations of time, matter and space, and takes the form of installations, objects and performances.

나의 작업은 ‘만남’으로부터 출발한다. 나의 만남은 한시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즉흥적이며 또 때로는 끝없는 마주침이다. 나의 ‘만남’은 타인과의 만남, 사물과의 만남, 또는 공간과의 만남이 될 수 있다. ‘만남’의 대상이 정해지면, 이 대상을 두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대상과 나는 들리지 않는 대화와 보이지 않는 형체를 공유한다. 나의 ‘만남’에 있어 작업적으로 이어지는 퍼포먼스는 나와 대상의 친밀한 대화 방식이다.

### 송근도

작가는 사회의 크고 작은 구성원들과 그들의 얽히고 설킨 거미줄 같은 관계를 풀어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작업을 한다. 예를 들어 현대 가족(Modern Family)을 이루는 구성의 요소, 단체 관광객들이 착용한 유니폼과 같이 보이는 등산복의 통일성, 아파트에서 불이 켜지고 꺼진 외부 광경을 목격하면서 타인과 자신의 연결고리 혹은 분절되는 현상 그리고 그 외부와 내부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작업의 목적은 개인의 변화 혹은 사회의 변화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그 현상을 직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길 원한다.

### 홍이지

#### “모래놀이 (Sand Game)” (2011)

In *Sand Game* (2012), the game the viewer unexpectedly comes to the end. This game originates from a memory of a childhood. If someone causes a twig to fall down, he or she loses the game. The competition between two players to win causes tension. When the twig falls down, the game is over.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의 게임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 작업은, 게임의 참가자가 나뭇가지를 쓰러뜨리게 되면, 게임이 끝난다 나뭇가지를 지탱하고 있는 모래가 제거되면서, 나뭇가지가 서있을 수 있는 수명은 점점 줄어들어 든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뭇가지가 쓰러지는 순간, 게임은 끝이난다.

### **홍이지 (Yiji Hong)**

아주 간결한 한 줄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개인적 혹은 보편적 경험을 무대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간과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묘사를 하고자 합니다.

### **김준표**

#### **“일면불월면불(日面佛月面佛)” (2010-2017)**

3000 개의 부처님 석고상을 만든 후 3000 개의 불상을 하나 하나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 까지 6 일 동안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 후 촬영한 이미지를 모두 연결하여 하나의 영상작품으로 만든 작업들이다.

삼천불상의 제작은 내자신속의 부처를 찾기 위한 참선의 행위였으며, 나의 작은 노력이었다. 과연 부다는 어디있는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주체인 나는 무엇인가?

### **김준표**

뉴욕 Parsons 의상디자인을 공부하다가 School of Visual Arts 에서 영화와 순수미술을 공부하였다. 대치송이신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적부터 불교를 접하였고 불교의 화두속에 내던져진 자신과 질문의 답을 찾아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